

운용전문 인력	성명 생년 직위	운용현황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	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(주식)				운용 경력년수							
			운용역		운용사									
			최근1년	최근2년	최근1년	최근2년								
	김준우	책임(VP)	32개	4,078억원	1.89%	-7.16%	15.13%	18.05%	9년 0개월					
<p>-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·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.</p> <p>-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: 해당사항없음</p> <p>-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</p> <p>-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.</p> <p>-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,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.</p> <p>- '운용경력년수'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.</p>														
<p>[업무수탁사 운용전문인력]</p> <p>해외 운용전문인력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펀드매니저</td> <td>Ronney Cheung (2024. 6.18 기준)</td> </tr> <tr> <td>과거 운용경력</td> <td>- 2011.08, Credit Suisse, Research Associate</td> </tr> </table>									펀드매니저	Ronney Cheung (2024. 6.18 기준)	과거 운용경력	- 2011.08, Credit Suisse, Research Associate		
펀드매니저	Ronney Cheung (2024. 6.18 기준)													
과거 운용경력	- 2011.08, Credit Suisse, Research Associate													
<p>· 집합투자증권은 『예금자보호법』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·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·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·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 <p>·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,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·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</p> <p>·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수 있으나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투자위험의 주요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가위험</td> <td>이 투자신탁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시장,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, 외국인의 투자 한도, 넓은 매매호가 차이,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,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. 아울러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도 있으며,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.</td> </tr> <tr> <td>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 험</td> <td>투자대상 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, 향후 투자대상 국가의 세법 변경 등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,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		구분	투자위험의 주요내용	국가위험	이 투자신탁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시장,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, 외국인의 투자 한도, 넓은 매매호가 차이,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,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. 아울러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도 있으며,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.	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 험	투자대상 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, 향후 투자대상 국가의 세법 변경 등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,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.
구분	투자위험의 주요내용													
국가위험	이 투자신탁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시장,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, 외국인의 투자 한도, 넓은 매매호가 차이,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,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. 아울러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도 있으며,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
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 험	투자대상 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,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, 향후 투자대상 국가의 세법 변경 등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,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

[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]

- 증권신고서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
- 투자설명서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
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amsungfund.com>)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
- 경기보고서(영업보고서, 결산서류)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및
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
- 자산운용보고서 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(<http://www.samsungfund.com>)
- 수시공시 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(<http://www.samsungfund.com>)

